果・假・遇攝韻의 字音 分類

-常用漢字表의 字音을 대상으로-

李京哲*
kanzi22@empal.com

Contents

Ⅰ. 序論
Ⅱ. 本論
1. 果攝
2. 假攝
3. 遇攝
Ⅲ. 結論

Abstract

2010年の新常用漢字2,136字の中で、果・假・遇攝の266字298音について、吳・漢音同形、吳音、漢音、唐音、慣用音の四つ五つに字音分類を行なった結果、次のような結論に至った。

攝	韻	吳漢同	吳音	漢音	唐音	慣用音	合計
果	歌(開1)	11	4	4	1	1	21
	戈(合1)	12	8	1	1	4	26
	戈(合3)	1					1
假	麻(開2)	2	7	20	1	1	31
	麻(合2)	2	2	3	1		8
	麻(開3)	10	2	4			16
遇	模(開1)	32	14	31	1	2	80
	魚(開3을)	2	9	12		1	24
	魚(開3갑)	17	6	4	1	3	31
	虞(開3을)	21	7	7		1	36
	虞(開3갑)	3	12	6		3	24
合計		113	71	92	6	16	298

* 동국대학교(seoul campus) 일어일문학과 교수. 일본어음운론.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上の表のように、果・假・遇攝韻に属する266字298音の中で、呉・漢音同形が113音、漢音が92音、呉音が71音、慣用音が16音、唐音が6音という分布を見せている。

16攝全體にわたる分類が終わると全體的な分布比率が浮かび上がるであろうが、豫想よりは漢音の割合が呉音よりあまり大きくない結果となった。それは、果攝諸韻、魚韻甲類、虞韻甲乙類が呉・漢音同形で現れ、且つ、模韻にも呉・漢音同形が多く含まれている為であろう。

果・假・遇攝韻の字音分類において、注意すべき点をまとめると、以下のようである。

1) 開口2等麻韻における牙喉音字の-a形については、古文獻を通じた確認作業が必要である。

2) 開口1等模韻において、漢音は-o形で出現するが、呉音は-u形と-o形とが混在しているので、-o形については古文獻を通じた確認作業が必要であり、[ロウ露(來1)]は呉・漢音同形に分類できる。

3) 開口3等魚韻甲乙類の齒音字においては、呉音・漢音と関係なく、サ行子音における直拗の混同によって[ソ・ショ]の二つの字音形に出現するので、これは聲母のみで字音を分類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開口3等虞韻甲類においては、-u形、-uu形、-iu形、-ju形などいろんな字音形が出現しているので、各行ごとに呉音・漢音の字音形を規定する必要があると考えられる。

Key Words : 呉音, 漢音, 字音形, 聲母
sino-japanese *Go'on*, sino-japanese *Kan'on*, Notations of chinese characters, Initial

Ⅰ. 序論

일본에서는 1981년 이래 常用漢字 1,945字를 사용해 오다가 2010년 11월에 구 常用漢字 1,945자에서 5자를 삭제하고, 196자를 추가하여 2,136字의 새로운 常用漢字를 사용하고 있다. 常用漢字는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자로, 기초적인 일본어 음운연구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常用漢字의 字音별 분류에 대해서는 2010년의 2,136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1981년의 1,945자에 대해서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常用漢字表에 실려 있는 字音에 대해서조차 그것이 呉音인지 漢音인지 常用漢字表에 그 字音에 대한 규정이 실려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어떠한 해설서조차 존재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각 字音에 대한 규정이 일본에서 출간된 현행 漢和辭典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각각의 漢和辭典 또한 통일된 字音 규정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예를 들어 遇攝 開口1等 模韻의 [古]라는 한자의 字音 [コ]에 대해 大修館書店(2001), 三省堂(1990), 小學館(2003)에서는 呉・漢音 동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學習研究社(2003), 講談社(1997), 大修館書店(1984)에서는 이를 漢音으로만 분류하고, 呉音에는 별도로 [ク]를 기재하고 있다.

漢和辭典에 나타나는 字音規定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李京哲(2005b・2006)과 李京哲・白惠英(2008・2009)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같이 漢和辭典마다 字音 규정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1,945자 또는 2,136자에 대한 字音 분류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呉・漢音 동형, 呉音, 漢音, 唐音, 慣用音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고문헌을 통해 구체적인 확인 작업을 필요로 하는 막대한 시간과 치밀한 분석을 동반하는 작업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먼저 常用漢字 2,136字의 2,352音에 대한 字音 분류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일본에서 사용되는 전체 漢字에 대한 字音 분류의 기준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果・假・遇攝韻에 해당하는 常用漢字 266字 298音에 대해 이를 呉・漢音 동형, 呉音, 漢音, 唐音, 慣用音으로 분류하여, 결과적으로 각 字音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각 漢字音마다의 字音 분류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실시한다.

1)常用漢字表 2,136字의 音讀 2,352音 중에서 果・假・遇攝의 266字 298音을 대상으로 한다.
2)각 漢字를 各 攝韻별로 나눈다.
3)각 攝韻별로 해당 常用漢字의 常用漢字音을 추출한다.
4)각 韻別로 해당 常用漢字音을 韻母의 반영과 聲母의 반영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字音 별로 분류한다.
5)먼저 해당 韻이 呉音, 漢音, 唐音자료의 고문헌에서 어떤 자음형으로 출현하는지를 파악하여 해당 常用漢字音을 그 韻母별 자음형과의 비교를 통해 字音별로 분류한다.
6)이어서 해당 常用漢字音을 中古漢語의 聲母體系와 비교하여 그 聲母의 반영을 통해 字音별로 분류한다.
7)呉音과 漢音의 자음형이 동일할 경우, 또는 구체적인 확인 작업을 요하는 자음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증자료를 통해 그 확인 작업을 거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上代借字表記자료: 萬葉集, 古事記, 日本書紀[1)]
吳音자료: 法華經, 大般若波羅蜜多經, 新譯華嚴經, 光明眞言, 金光明最勝王經, 類聚名義抄[2)]
漢音자료: 蒙求, 群書治要, 三藏法師伝, 本朝文粹, 佛母大孔雀明王經[3)]
唐音자료: 金光明懺法, 小叢林略清規, 觀世音菩薩普門品[4)]

8)記紀萬葉[5)]의 借字表記에 출현하는 자음형은 이를 별도로 분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吳音에 포함시킨다.

Ⅱ. 本論

이하 각 攝韻별로 해당 常用漢字의 字音을 吳·漢音 동형, 吳音, 漢音, 唐音, 慣用音이라는 다섯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왜 그렇게 분류했는지 그 분류의 방법, 절차, 이유에 대해 논증해 가도록 한다.

1. 果攝

1.1. 開口1等 歌韻

吳漢(11):カ歌箇(見k)·可(溪k^h)/ガ我餓(疑ŋ)·タ多(端t)·他(透th)/ラ羅(來l)/サ左·佐·作(精ts)
吳音(4):ガ賀(匣ɦ)/ダ駄(定d)/ナ奈·那(泥n)
漢音(4):カ何河苛荷(匣ɦ)
唐音(1):コ個(見k)

1) 万葉集은 大塚毅(1978), 古事記는 高木市之助·富山民蔵(1974), 日本書紀는 大野晉(1953)를 사용한다.
2) 法華経은 小倉肇(1995), 般若波羅蜜多経은 김정빈(2007), 新訳華厳経은 榎木久薫(1988), 光明真言은 榎木久薫(1989), 金光明最勝王経은 小倉肇(1978, 1979), 類聚名義抄는 沼本克明(1995)의 分韻表를 사용한다.
3) 蒙求·群書治要·三蔵法師伝·本朝文粋는 佐々木勇(2009a), 仏母大孔雀明王経은 李京哲(2005a)의 分韻表를 사용한다.
4) 沼本克明(1997:584-622)의 分韻表를 사용한다.
5) 日本書紀는 森博達(1991)에 의해 漢音을 근거로 한 α군과 呉音을 근거로 한 β군으로 나뉘고 있는데, 본고에서 말하는 記紀万葉에서의 日本書紀는 呉音을 근거로 한 β군만을 의미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慣用音(1):ダ蛇(透t^h)

開口1等 歌韻은 21字 21音으로, 吳音・漢音 모두 -a형으로 출현하며, 唐音은 -o형으로 출현한다. 따라서 같은 -a형에 대해서는 그 聲母로써 字音을 판별해야 한다.

즉 濁字를 濁音으로 반영한 [ガ賀(匣ɦ)/ダ駄(定d)]와 淸濁字를 鼻音으로 반영한 [ナ奈・那(泥n)]는 吳音으로, 濁字를 淸音으로 반영한 [カ何河苛荷(匣ɦ)]는 漢音으로, 그밖에 吳音과 漢音의 聲母가 동일하게 출현하는 淸・次淸字와 疑・來母字에 해당하는 [カ歌箇(見k)・可(溪k^h)/ガ我餓(疑ŋ)・タ多(端t)・他(透th)/ラ羅(來l)/サ左・佐・作(精ts)]는 吳・漢音 동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コ個(見k)]는 조사대상의 唐音자료에서는 해당 漢字를 확인할 수 없지만, [可珂コ/我餓ゴ[6]] 등의 -o형을 통해 唐音임을 유추할 수 있으며, [個人コジン] 등의 漢語에 남아 있다.

[ダ蛇(透t^h)]는 中古音에서 開口3等 麻韻의 神(dz)母에도 속한 多音字인데, 이 開口3等 麻韻의 神母를 반영했다 하더라고 [ジャ・シャ]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淸濁의 혼동에 의한 慣用音으로 볼 수밖에 없다.

1.2. 合口1等 戈韻

吳漢(12):カ果菓過(見k)・科課(溪k^h)・火貨(曉h)/ハ波(幫p)・破(滂p^h)/ラ裸(來l)/サ唆・鎖(心s) 吳音(8):バ婆(並b)/マ摩磨魔(明m)/ダ堕惰(定d)/ザ座(從dz)/ワ和(匣ɦ)

漢音(1):カ禍(匣ɦ)

唐音(1):オ和(匣ɦ)

慣用音(4):カ渦(影?)/ダ妥・唾(透t^h)/ザ挫(精ts)

合口1等 戈韻은 25字 26音으로, 吳音・漢音 모두 -(w)a형으로 출현하며, 唐音은 -(w)o형으로 출현한다. 단지 合拗音의 상실로 인해 -wa형・-wo형 모두 -a형・-o형으로 변한다.

따라서 같은 -(w)a형에 대해서는 그 聲母로써 字音을 판별해야 한다. 즉 濁

6) 沼本克明(1997:595)를 참조하기 바란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字를 濁音으로 반영한 [バ婆(並b)/ダ堕惰(定d)/ザ座(從dz)], 匣母를 ワ行으로 반영한 [ワ和(匣ɦ)], 清濁字를 鼻音으로 반영한 [マ摩磨魔(明m)]는 呉音으로, 濁字를 清音으로 반영한 [クワ>カ禍(匣ɦ)]는 漢音으로, 그밖에 清・次清字 및 來母字에 속하는 [クワ>カ果菓過(見k)・科課(溪k^h)・火貨(曉h)/ハ波(幫p)・破(滂p^h)/ラ裸(來l)/サ唆・鎖(心s)]는 呉・漢音 동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ヲ>オ和(匣ɦ)]는 唐音자료[7]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和尚オショウ] 등의 漢語에 남아 있다.

또한 影母를 母音이 아닌 カ行으로 반영한 [カ渦(影?)]는 [過] 등에서의 聲符에 의한 類推에 해당하며, 清字를 濁音으로 반영한 [ダ妥・唾(透t^h)/ザ挫(精ts)]와 清濁의 혼동에 의한 예에 해당하므로 慣用音으로 분류하였다.

1.3. 合口3等 戈韻

呉漢(1):カ靴(曉h)

合口3等 戈韻의 常用漢字는 [クワ>カ靴(曉h)] 1예뿐으로, 呉音・漢音 모두 -wa형으로 출현한다.

2. 假攝

2.1. 開口2等 麻韻

呉漢(2):カ加(見k)/ハ把(幫p)
呉音(7):ケ假家(見k)/ゲ下夏(匣ɦ)・牙(疑ŋ)/マ麻(明m)/シャ砂(山ʃ)
漢音(20):ア亜(影?)/カ假家価架嫁稼(見k)・暇下夏(匣ɦ)/ガ牙芽雅(疑ŋ)/ハ覇(幫p)/バ馬罵(明m)/サ詐(莊tʃ)・砂沙(山ʃ)/チャ茶(澄ɖ)
唐音(1):サ茶(澄ɖ)
慣用音(1):ダ打(端t)

開口2等 麻韻은 24字 31音으로, 漢音에서 -a형으로 나타나며, 呉音에서 주로 -e형으로 나타나지만, 齒音字는 -ja형으로 출현하며, 일부 -a형이 혼재하고 있다.

7) 沼本克明(1997:597)를 참조하기 바란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따라서 먼저 -e형으로 반영된 [ケ假家(見k)/ゲ牙下夏(匣ɦ)]와 -ja형으로 반영된 [シャ砂(山ʃ)]는 吳音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チャ茶(澄ɖ)]는 切韻音 이후 舌頭音에서 舌上音으로 分立한 것을 반영하여 [タ]가 아닌 [チャ]로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漢音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나머지 -a형에 대해서는 吳音에서 -e형・-ja형의 출현여부와 그 聲母의 반영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분류해야 한다. 먼저 淸濁字를 鼻音으로 반영한 [マ麻(明m)]는 吳音으로, 濁字를 淸音으로 반영한 [カ暇下夏(匣ɦ)]와 淸濁字를 濁音으로 반영한 [バ馬罵(明m)]는 漢音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a형 중에서 齒音字에 해당하는 [サ詐(莊tʃ)・砂沙(山ʃ)]는 吳音에 이에 대응하는 [シャ]형[8]이 출현하기 때문에 漢音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a형에 해당하는 牙喉音字인데, 吳音에서 -e형으로도 출현하지만 漢音과 같은 -a형도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吳音자료에서 일일이 확인을 거쳐야 한다.

[カ加(見k)]는 上代 記紀萬葉의 借字表記에 쓰였던 字音으로 平仮名[か]・片仮名[カ]의 기원이 된 漢字로, 吳音자료에서도 [ケ]의 흔적은 엿볼 수 없고, [カ]로만 나타난다. 이처럼 [加(見k)]가 吳音자료에서 [カ]로만 나타나는 이유로 上代 記紀萬葉의 借字表記가 吳音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9]. 현재 일반적인 字音 분류에서는 古音 또는 上代 記紀萬葉의 借字表記를 따로 설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吳・漢音 동형으로 분류해야 한다.

[ア亜(影?)]는 吳音자료에 字音表記된 예는 없으나, 類聚名義抄에서 [阿]를 同音註로 기입해 놓았으며, 大般若波羅蜜多經에서는 같은 影母字인 [痾]에 [ア][10]로 表記되어 있 등 吳音直讀자료에서는 [ア]표기만을 볼 수 있지만, 古事記에서 [エ]의 借字表記[11]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漢音으로 분류하였다.

[ハ把(幫p)]에 대해서는 萬葉集과 日本書紀 β 군에서 [覇]를 [ヘ甲]으로 借字表記한 예를 볼 수 있지만, [ハ把(幫p)]에 대해 吳音直讀자료에서는 [ハ]로 나타나며, 明母字만 [メ]로 나타날 뿐, 그 밖의 脣音字를 [ヘ]로 표기한 예는 찾아

8) 宋在漢(2012:27)을 참조하기 바란다.
9) 이에 대해서는 李京哲・宋在漢(2012)에서 언급하고 있다.
10) 김정빈(2007:482)을 참조하기 바란다.
11) 申智娟(2012:19)을 참조하기 바란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볼 수 없다[12]. 따라서 [ハ把(幫p)]는 呉・漢音 동형으로 분류하였다.

[サ茶]는 唐音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13], [喫茶キッサ] 등의 漢語에 남아 있어 唐音으로 분류하였다.

[ダ打(端t)]는 清濁의 혼동에 의한 예이므로 慣用音으로 분류할 수 있다.

2.2. 合口2等 麻韻

呉漢(2):カ寡(見k)/ガ瓦(疑ŋ)
呉音(2):ケ化華(暁h)
漢音(3):カ化花華(暁h)
唐音(1):コ誇(溪k^h)

合口2等 麻韻은 6字 8音으로, 呉音에서 주로 -(w)e형으로 나타나지만, 일부 -(w)a형이 혼재하고 있으며, 漢音은 모두 -(w)a형으로, 唐音은 -(w)o형으로 출현한다.

따라서 먼저 [化・花・華]는 呉音의 [クヱ]와 漢音의 [クワ]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으며, [クワ寡(見k)/グワ瓦(疑ŋ)]는 呉音자료에서도 -wa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14] 呉・漢音 동형으로 분류하였다.

[コ誇]는 조사대상의 唐音자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麻韻이 唐音에서 주로 -o형으로 출현하고 있으며, [誇張コチョウ] 등의 漢語에 남아 있어, 唐音으로 분류하였다.

2.3. 開口3等 麻韻

呉漢(10):ヤ夜野冶(喩'j)/シャ者(照tɕ)・遮車(穿$tɕ^h$)・写(心s)・舎捨赦(審ɕ)
呉音(2):ジャ邪(邪z)・蛇(神dz)
漢音(4):シャ射(神dz)・斜謝(邪z)・社(禪z)

開口3等 麻韻은 14字 16音으로, 呉音・漢音 모두 -ja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12) 宋在漢(2012:27)을 참조하기 바란다.
13) 沼本克明(1997:597)를 참조하기 바란다.
14) -we형이 없이 -wa형으로만 나타나는 예로, [蝸・寡クワ/瓦グワ/窪ワ・グワ]가 있다. 宋在漢(2012:27)을 참조하기 바란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聲母에 의해서만 呉音・漢音을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清・次清字와 喩母字에 해당하는 [ヤ夜野冶(喩′j)/シャ者(照tɕ)・遮車(穿tɕʰ)・写(心s)・舎捨赦(審ɕ)]는 모두 呉・漢音 동형으로, 濁字를 濁音으로 반영한 [ジャ邪(邪z)・蛇(神dz)]는 呉音으로, 濁字를 清音으로 반영한 [シャ射(神dz)・斜謝(邪z)・社(禪z)]는 漢音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遇攝

3.1. 開口1等 模韻

呉漢(32):コ古固錮故股顧(見k)・枯庫(溪kʰ)・呼(暁h)/ゴ午五悟呉誤娯(疑ŋ)/オ汚悪(影ʔ)/ト妬賭(端t)・吐(透tʰ)/ロ炉路露賂(來l)/ロウ露(來l)/ソ祖租組(精ts)・措(清tsʰ)・訴塑遡(心s)

呉音(14):ク苦(溪kʰ)/ゴ互護(匣ɦ)/フ譜布(幫p)・普怖(滂pʰ)/モ模(明m)/ツ都(端t)/ズ図(定d)/ド度土(定d)/ス素(心s)/ブ歩(並b)

漢音(31):コ孤雇鼓(見k)・戸湖弧(匣ɦ)/コ虎(暁h)/ホ補(幫p)・浦舗(滂pʰ)・歩捕哺(並b)/ボ募慕模暮墓(明m)/ト土図徒途塗度渡(定d)・都(端t)/ド奴怒努(泥n)/ソ粗(從dz)・素(心s)

唐音(1):ク庫(溪kʰ)

慣用音(2):フ歩(並b)/リョ虜(來l)

開口1等 模韻은 73字 80音으로, 漢音에서는 모두 -o형으로 나타나지만, 呉音에서는 -u형과 -o형이 혼재하고 있으며, 唐音에서는 -u형으로 출현한다. 따라서 먼저 -u형은 모두 漢音에서 제외된다. 이 중 [ク庫(溪kʰ)] 는 唐音자료에서 [古孤苦ク・五ウ・祖ス] [15]등을 통해 -u형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으며 [庫裏クリ] [16]등의 漢語에 남아 있어 唐音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밖의 -u형에 해당하는 [ク苦/フ譜布(幫p)・普怖(滂pʰ)/ツ都(端t)/ヅ>ズ図(定d)/ス素(心s)/ブ歩(並b)]는 呉音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단지 [フ歩(並b)]는 清濁의 혼동에 해당하여 慣用音으로 분류하였다.

-o형에 대해서는 그 聲母만이 字音 판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濁字를 濁音

15) 沼本克明(1997:566-567)를 참조하기 바란다.
16) 山田孝雄(1958:170)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으로 반영한 [ゴ互護(匣ɦ)/ド度土(定d)]와 清濁字를 鼻音으로 반영한 [モ模(明m)]는 呉音으로, 濁字를 清音으로 반영한 [コ戸湖弧(匣ɦ)/ホ歩捕哺(並b)/ト土[17]図徒途塗度渡(定d)/ソ粗(從dz)]와 疑母 이외의 清濁字를 濁音으로 반영한[ボ募慕模暮墓(明m)/ド奴怒努(泥n)]는 漢音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밖에 清・次清字 및 疑母字의 -o형에 대해서는 呉音자료에서 -u형이 출현하는지의 여부로 그 字音을 판별해야 한다. 즉 呉音자료에서 -u형이 출현하는 [コ孤雇鼓(見k)・コ虎(曉h)/ホ補(幫p)・浦舗(滂p^h)/ト都(端t)/ソ素(心s)]는 漢音으로 분류하였지만, 呉音자료에서 -u형을 확인할 수 없는 [コ古固錮故股顧(見k)・枯庫(溪k^h)・呼(曉h)/ゴ午五悟呉誤娯(疑ŋ)/オ汚悪(影ʔ)/ト妬賭(端t)・吐(透t^h)/ロ炉路露賂(來l)/ソ祖租組(精ts)・措(清ts^h)・訴塑遡(心s)][18]는 呉・漢音 동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ロウ露(來l)]는 유일하게 -ou형으로 남아 있는데, [露]가 [ロウ]로 출현한 예를 조사대상의 呉・漢音자료에서는 발견할 수 없지만, 呉・漢音 모두 -ou형으로 출현하는 예를 찾아볼 수 있다[19]. 이는 模韻이 ʌu라는 二重母音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2拍의 -ou형으로 표기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ロウ露(來l)]는 그 흔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ロウ露(來l)]는 呉・漢音 동형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リョ虜(來l)]는 呉・漢音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는 자음형이기 때문에 慣用音으로 분류하였다.

3.2. 開口3等 魚韻乙類

呉漢(2):ショ初(初$tʃ^h$)・所(山ʃ)

呉音(9):コ拠(見k)・去(溪k^h)・虚(曉h)/ゴ語御(疑ŋ)/ソ阻(莊tɕ)・礎(初$tʃ^h$)・疎(山ʃ)/ジョ助(牀ʤ)

漢音(12):キョ居挙拠(見k)・去(溪k^h)・巨拒距(群g)・許虚(曉h)/ギョ魚御漁(疑ŋ)

慣用音(1):リョウ漁(疑ŋ)

---

17) [土]는 定(d)母와 透(t^h)母에 해당하는 多音字인데, 여기에서는 呉音의 [ド] 반영을 참고하여 定(d)母로 분류하였다.

18) 宋在漢(2012:37-39)을 참조하기 바란다.

19) 李京哲(2009:130-131)을 참조하기 바란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開口3等 魚韻을류는 20字 24音으로, 乙類는 吳音에서는 모두 -o형으로, 漢音에서는 -jo형으로 명확하게 구분된다.

따라서 먼저 -o형으로 나타나는 [コ拠(見k)・去(渓k^h)・虚(暁h)/ゴ語御(疑ŋ)/ソ阻(荘tɕ)・礎(初$tʃ^h$)・疎(山ʃ)/ジョ助(牀ʤ)]는 吳音으로, -jo형으로 나타나는 [キョ居挙拠(見k)・巨拒距(群g)・許虚(暁h)・去(渓k^h)/ギョ魚御漁(疑ŋ)]는 漢音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단지 齒音字의 경우 日本語 サ行子音의 口蓋性으로 인해 直音表記와 拗音表記가 혼재한다. 따라서 齒音字는 고문헌에 나타나는지의 여부와 聲母에 따른 淸濁의 구분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병용해야 한다. [ジョ助(牀ʤ)]의 경우에는 吳音에서 -o형이 일반적이지만, 濁字를 濁音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吳音으로 처리하였으며, [ショ初(初$tʃ^h$)・所(山ʃ)]는 漢音의 -jo형에 가깝지만, 吳音자료[20]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吳・漢音 동형으로 분류하였다.

[リョウ漁(疑ŋ)]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獵]의 字音 [レフ>リョウ]를 취한 것이므로 慣用音으로 분류하였다.

3.3. 開口3等 魚韻甲類

吳漢(17):ヨ与余予誉預(喩′j)/チョ貯(端t)・著(知ʈ)/リョ旅呂侶慮(來l)/ショ諸(照tɕ)・処(穿$tɕ^h$)・書庶暑(審ɕ)/ソ狙(淸ts^h)
吳音(6):ジョ序敍徐(邪z)・除(澄ɖ)/ニョ如(日ɲz)・女(娘ɳ)
漢音(4):ショ署(禪z)・緒(邪z)/ジョ如(日ɲz)・女(娘ɳ)
唐音(1):ジ除(澄ɖ)
慣用音(3):チョ緒(邪z)/ニョウ女(娘ɳ)/シャ煮(照tɕ)

開口3等 魚韻갑류는 27字 31音으로, 吳音・漢音에서 모두 -jo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聲母에 의해서만 吳音・漢音을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淸・次淸字와 喩・來母字에 해당하는 [ヨ与余予誉預(喩′j)/チョ貯(端t)・著(知ʈ)/リョ旅呂侶慮(來l)/ショ諸(照tɕ)・処(穿$tɕ^h$)・書庶暑(審ɕ)]는 모두 吳音・漢音 동형으로, 濁字를 濁音으로 반영한 [ジョ序敍徐(邪z)・ヂョ>ジョ除(澄ɖ)]와 淸濁字를

20) 吳音자료에서 [ショ詛初蔬所疏/ジョ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宋在漢(2012:48)을 참조하기 바란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鼻音으로 반영한 [ニョ如(日ȵz)・女(娘ȵ)]는 呉音으로, 濁字를 清音으로 반영한 [ショ署(禪z)・緒(邪z)]와 清濁字를 濁音으로 반영한 [ジョ如(日ȵz)・女(娘ȵ)]는 漢音으로 분류하였다.

단지 [ソ狙(清ts^{h})]는 サ行子音의 口蓋的 성격으로 인한 直拗의 혼동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呉音・漢音 동형으로 분류하였다.

[ヂ>ジ除(澄ɖ)]는 唐音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21], [掃除ソウジ] 등의 漢語에 남아 있다.

그밖에 [チョ緒(邪z)]는 [著], [シャ煮(照tɕ)]는 [者]에서 聲符에 의한 類推로 볼 수 있으며, [ニョウ女(娘ȵ)]는 長音化에 의한 것으로 慣用音으로 분류하였다.

3.4. 開口3等 虞韻乙類

呉漢(21):ク句(見k)・区駆(渓k^{h})/グ愚(疑ŋ)/グウ隅遇(疑ŋ)/ウ宇羽雨(于′∅)/フ夫父付府膚賦(非f)・扶赴訃敷(敷f^{h})/ス数(山ʃ)/スウ数(山ʃ)
呉音(7):グ具惧(群g)/フウ夫(非f)/ム務霧武無(微ɱ)
漢音(7):フ附符腐(奉v)/ブ侮舞武無(微ɱ)
慣用音(1):ボ簿(奉v)

開口3等 虞韻을류는 33字 37音으로, 呉音・漢音에서 모두 -u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聲母에 의해서만 呉音・漢音을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清・次清字와 于母字에 해당하는 [ク句(見k)・区駆(渓k^{h})/グ愚(疑ŋ)/ウ宇羽雨(于′∅)/フ夫父付府膚賦(非f)・扶赴訃敷(敷f^{h})/ス数(山ʃ)]는 모두 呉音・漢音 동형으로, 濁字를 濁音으로 반영한 [グ具惧(群g)]와 疑母를 제외한 清濁字를 鼻音으로 반영한 [ム務霧武無(微ɱ)]는 呉音으로, 濁字를 清音으로 반영한 [フ附符腐(奉v)]와 疑母를 제외한 清濁字를 濁音으로 반영한 [ブ侮舞武無(微ɱ)]는 漢音으로 분류하였다.

단지 呉音・漢音에서 모두 [グウ隅遇(疑ŋ)/スウ数(山ʃ)]와 같이 長音形인 -uu형이 나타나는데, 李京哲(2002:70-72・2009:131-132)에서 언급한 대로, 이는 介音 ï와 陰韻尾 u를 동시에 반영하여 2拍으로 수용한 자음형으로 呉・漢音 동형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フウ夫(非f)]만은 이미 李京哲(2009:132)에

21) 唐音에서는 魚韻이 주로 -i형으로 출현한다. 沼本克明(1997:564-566)를 참조하기 바란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서 언급한 대로 唐代의 輕脣音化를 반영한 漢音에서는 介音 ï를 반영할 수 없어 長音形의 출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呉音으로 분류하였다.

[コウ拘(見k)]는 유일하게 -ou형으로 남아 있는 예인데, 呉音자료에서는 [ク・クウ]로만 나타나며, 漢音자료에서는 本朝文粋에서 [コウ拘][22]의 예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佐々木勇(2009a:536)가 集韻에서는 侯韻에도 속한다고 언급했듯이, [コウ拘(見k)]는 虞韻을류의 일반적인 呉音・漢音形과 다르기 때문에 역시 侯韻의 반영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コウ拘(見k)]는 流攝 侯韻에서 다루기로 한다.

[ボ簿(奉v)]는 濁字를 濁音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呉音일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지만, 呉音자료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없으며, 唐音에서도 虞韻을류의 脣音字는 -u형으로 출현[23]하기 때문에 慣用音으로 분류하였다.

3.5. 開口3等 虞韻甲類

呉漢(3):チュウ駐注(知ʈ)/スウ枢(穿tɕʰ)
呉音(12):ユ愉喩諭癒(喩ʹj)/ジュウ住(澄ɖ)/シュ朱(照tɕ)・取趣(清tsʰ)/ジュ樹(禪z)/ニュウ乳(日ɲz)/ス主・須(照tɕ)
漢音(6):ユウ裕(喩ʹj)/チュウ柱(澄ɖ)/シュ殊(禪z)・主珠(照tɕ)/ジュ儒(日ɲz)
慣用音(3):チュウ鋳(照tɕ)/ジュ需(心s)/ユ輸(審ɕ)

開口3等 虞韻甲類는 23字 24音으로, 呉音・漢音에서 -u형, -uu형, -iu형, -ju형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출현한다.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2拍의 直音形인 -iu형과 1拍의 拗音形인 -ju형인데, -ju형은 ヤ行과 サ行에만 한정되며, 두 자음형 모두 呉音・漢音 모두에서 출현하기 때문에 그 聲母에 의해서만 呉音・漢音을 분류할 수 있다.

먼저 -iu형과 -ju형에 喩母와 清・次清字에 해당하는 [ユ愉喩諭癒(喩ʹj)/イウ>ユウ裕(喩ʹj)/チウ>チュウ駐注(知ʈ)/シュ朱珠(照tɕ)・取趣(清tsʰ)]는 呉・漢音 동형으로, 濁字를 濁音으로 반영한 [ヂウ>ジュウ住(澄ɖ)/ジュ樹(禪z)]와 清濁字를 鼻音으로 반영한 [ニウ>ニュウ乳(日ɲz)]는 呉音으로, 濁字를 清音으로 반영한 [チウ>チュウ柱(澄ɖ)/シュ殊(禪z)]와 清濁字를 濁音으로 반영한

22) 佐々木勇(2009a:536)를 참조하기 바란다.
23) 沼本克明(1997:568)를 참조하기 바란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ジュ儒(日ɲz)]는 漢音으로 분류할 수 있다.

喩母는 [ユ愉喩諭癒]와 [イウ>ユウ裕(喩′j)]의 두 가지 자음형으로 나타나는데, 현용 漢和辭典에서는 대부분 [イウ>ユウ裕(喩′j)]를 慣用音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ユ]만을 吳・漢音 동형으로 분류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ユ]와 [イウ>ユウ]는 吳・漢音자료에서 모두 출현하고 있다. 吳音자료에서는 1拍의 요음형인 [ユ]가 우세하지만, [イウ>ユウ兪・逾・愈・喩][24]와 같은 2拍의 [ユウ]형을 발견할 수 있으며, 漢音자료에서도 [ユ] 이외에 [イウ>ユウ瑜・庾・愈・愉・裕・腴・窬][25]라는 자음형이 출현하고 있다. 단지 上代 記紀萬葉의 借字표기에 이들 虞韻 喩母字가 [ユ]표기에 이용되었다는 점, 다른 모든 行에 걸쳐 -iu형이 공통적으로 출현하며, 결국 시대가 내려옴에 따라 -iu형으로 통일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喩母字의 [ユ]표기를 吳音, [ユウ]표기를 漢音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판단된다.

[注チウ>チュウ]는 廣韻에서 照(tɕ)母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漢和辭典에서 [チュウ]를 慣用音으로 分類하고 있는데, 集韻에는 [株遇切], [音駐], [陟救切]로 나타나, 反切上字의 [株・陟]과 同音 [駐]에서 知母에 해당하는 字音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吳音자료에서도 [チウ]로 표기된 예를 다수 발견할 수 있으며, 小倉肇(1995:430, 434)도 이를 인식하고 [注]를 知母와 照母로 나누어 배열하고 있다. 따라서 [注チュウ]는 集韻에 의거해 知母의 반영으로 보아 吳・漢音 동형으로 분류하였다.

[シュ朱(照tɕ)・取趣(清ts^{h})]는 현재 [ス]에 해당하는 자음의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역사적으로 ス>シュ>シウ로 표기의 변화를 보여 漢音자료에서 サ行의 [シュウ]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吳音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珠(照tɕ)]는 조사대상의 吳音자료에서는 [ス]표기를 확인할 수 없지만, 현음의 [数珠ジュズ・ズズ]에서 [ス]표기를 확인할 수 있으며, 萬葉集의 借字表記에도 [ス]가 존재하기 때문에 [珠(照tɕ)シュ]는 漢音으로 분류하였다.

[スウ枢(穿tɕ^{h})]는 현재 대부분의 漢和辭典에서 慣用音으로 분류하고 있는

24) 宋在漢(2012:54-55)을 참조하기 바란다.
25) 蒙求에서 [イウ瑜庾愈・ユウ愉庾], 群書治要에서 [イウ裕], 三蔵法師伝에서 [イウ腴窬裕], 本朝文粋에서 [イウ庾]를 예를 찾을 수 있다. 佐々木勇(2009a:81, 304, 412, 538)를 참조하기 바란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데, 이는 모든 사전에서 [ス・シウ>シュウ・シュ] 중 어느 한 자음형만을 吳音・漢音으로 인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スウ枢(穿tɕʰ)]는 漢音자료인 蒙求와 本朝文粹[26]에서 그 예를 확인할 수 있으며, [スウ]는 [スウ澍・竪]와 같이 吳音자료[27]에서도, [スウ足・趍・娶・趣・趍・樞・須/ズウ儒・孺・乳]와 같이 漢音자료[28]에서도 모두 출현하고 있는데, 이는 サ行子音의 口蓋的 성격으로 인한 直拗의 혼동으로 인해 출현한 자음형으로 보인다. 따라서 [スウ枢(穿tɕʰ)]는 吳音・漢音 동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밖에 [ジュ需(心s)]는 淸濁의 혼동에 해당하며, [ユ輸(審ɕ)]는 [兪・喩・愉] 등의 聲符에 의한 類推에 해당하며, [チュウ鋳(照tɕ)]도 그 聲母로 보아 [シュウ] 내지 [シュ]로 나타나야 하므로 慣用音으로 분류할 수 있다.

Ⅲ. 結論

지금까지 常用漢字 중에서 果・假・遇攝韻에 해당하는 266字 298音을 대상으로, 이를 吳音・漢音・唐音・慣用音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보였다.

攝	韻	吳漢同	吳音	漢音	唐音	慣用音	合計
果	歌(開1)	11	4	4	1	1	21
	戈(合1)	12	8	1	1	4	26
	戈(合3)	1					1
假	麻(開2)	2	7	20	1	1	31
	麻(合2)	2	2	3	1		8
	麻(開3)	10	2	4			16
遇	模(開1)	32	14	31	1	2	80
	魚(開3을)	2	9	12		1	24
	魚(開3갑)	17	6	4	1	3	31
	虞(開3을)	21	7	7		1	36
	虞(開3갑)	3	12	6		3	24
合計		113	71	92	6	16	298

26) 佐々木勇(2009:80, 538)를 참조하기 바란다.
27) 宋在漢(2012:55-56)을 참조하기 바란다.
28) 佐々木勇(2009:80-81, 303, 538)를 참조하기 바란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위의 표와 같이 果・假・遇攝韻에 해당하는 266字 298音 중에서 呉・漢音 동형이 113音, 漢音이 92音, 呉音이 71音, 慣用音이 16音, 唐音이 6音이라는 분포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16攝 전체의 분류가 끝나면 전체적인 분포비율이 들어나겠지만, 예상보다 漢音의 비율이 呉音보다 그리 크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물론 果攝 諸韻, 魚韻 갑류, 虞韻 갑을류가 呉・漢音 동형으로 나타나며, 模韻에도 呉・漢音 동형이 많다는 것이 그 이유가 될 것이다.

果・假・遇攝韻의 자음 분류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開口2等 麻韻에서 牙喉音字의 -a형에 대해서는 漢音뿐만 아니라 呉音에서도 -a형이 출현하기 때문에 고문헌을 통해 일일이 확인을 거쳐야 한다.

2)開口1等 模韻에서 漢音은 -o형으로 출현하지만, 呉音은 -u형과 -o형이 혼재하기 때문에 -o형에 대해서는 고문헌을 통해 일일이 확인을 거쳐야 하며, [ロウ露(來l)]는 呉・漢音 동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3)開口3等 魚韻 갑을류의 齒音字에서는 呉音・漢音에 관계없이 サ行子音의 直拗의 혼동에 의해 [ソ・ショ] 두 가지로 출현하기 때문에 오로지 聲母에 의해서만 字音을 분류할 수 있다.

4)開口3等 虞韻 갑류에서 -u형, -uu형, -iu형, -ju형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출현한다. 먼저 여기에서 -u형은 呉音으로, -uu형은 呉・漢音 동형으로 규정할 수 있다. -iu형과 -ju형도 呉・漢音 동형으로 규정할 수 있지만, 이들 자음형이 현존할 경우에 문제가 된다. 따라서 각 行별로 다음과 같이 자음규정을 제시한다.

ヤ行은 -ju형과 -iu>-juu형으로 출현하는데, 두 자음형 모두 呉・漢音자료에 모두 출현하지만, 呉音자료에는 [ユ]가 압도적으로 많고 시대가 내려옴에 따라 [ユウ]가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喩母字의 [ユ]를 呉音, [イウ>ユウ]를 漢音으로 분류한다.

ラ行은 -u형과 -iu>-juu형이 출현하는데, 먼저 -u형은 呉音, -iu >-juu형은 呉・漢音 동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한 漢字에 두 字音形이 모두 남아 있을 경우에는 [ル]를 呉音, [リウ>リュウ]를 漢音으로 규정하며, 고문헌에서 실증자료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リウ>リュウ]로 표기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サ・ザ行은 -u형, -uu형, -ju형, -iu>-juu형이 모두 출현하는데, 먼저 -u형은 呉音, 나머지는 모두 呉・漢音 동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한 漢字에 -u형과 나머지 다른 字音形이 모두 남아 있을 경우에는 [ス・ズ]를 呉音, [スウ・シュ・シウ>シュウ] 중 어느 하나를 漢音으로 규정한다.

또한 -ju형과 -iu>-juu형이 현재 한 漢字에 함께 남아 있을 경우에는 [シュ・ジュ]를 呉音, [シウ>シュウ]를 漢音으로 규정하며, -ju형이나 -iu>-juu형의 어느 한쪽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聲母로 판별해야 한다. 이 때 聲母로 판별이 불가능한 淸・次淸字는 [シュ]를 呉音으로, [シウ>シュウ]를 漢音으로 규정한다.

カ・ガ・タ・ダ・ナ行은 -iu>-juu형으로만 정착되었기 때문에, -iu >-juu형을 이 呉・漢音 동형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들 行에서는 -ju형을 일본한자음의 자음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辞典 및 資料>
김정빈(2007)「安田八幡宮蔵大般若波羅蜜多経 分紐分韻表」『일본오음연구』책사랑.
李京哲(2005a)『仏母大孔雀明王経 字音研究』책사랑.
榎木久薫(1998)「高山寺蔵寛喜元年識語本新訳華厳経加点字翻刻並びに分韻表」『鎌倉時代語研究』第21輯, 鎌倉時代語研究会.
大野晉(1953)「日本書紀字音仮名一覧」『上代仮名遣いの研究-日本書紀の仮名を中心として-』岩波書店.
小倉肇(1978)「金光明最勝王経音義字音攷(Ⅰ)」『弘前大学教育学部紀要』第40号, 弘前大学.
_____(1979)「金光明最勝王経音義字音攷(Ⅱ)」『弘前大学教育学部紀要』第41号, 弘前大学.
_____(1995)『日本呉音の研究 第Ⅱ部 研究篇』新典社.
大塚毅(1978)『万葉仮名音韻字典上・下』勉誠社.
鎌田正・米山寅太郎(2001)『漢語新辞典』大修館書店.
柏谷嘉弘(1965)「図書寮本文鏡秘府論字音点」『国語学』第六十一集, 国語学会.
小林信明(2003)『新選漢和辞典』小学館.
佐々木勇(2009a)『平安鎌倉時代に於ける日本漢音の研究 資料篇』汲古書院.
高木市之助・富山民蔵(1974)『古事記総索引』平凡社.
竹田晃・坂梨隆三(1997)『漢和辞典』講談社.
築島裕(1967)『興福寺本大慈恩寺三蔵法師伝古点の国語学的研究』東京大学出版会.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沼本克明(1995)「観智院本類聚名義抄和音分韻表」『日本漢字音史論輯』築島裕<編> 汲古書院.
_____(1997)「宋音・唐音 統合分紐分韻表」『日本漢字音の歴史的研究』汲古書院.
諸橋轍次(1984)『大漢和辞典』大修館書店.
李珍華・周長楫(1998)『漢字古今音表』中華書局.

<論文>
김정빈(2007)『일본오음연구』책사랑, pp.309-313, 238-255.
宋在漢(2012)『日本 呉音의 韻類体系 研究』東国大学校 博士学位 論文, pp.14-60.
申智娟(2012)『『古事記』에 사용된 借表記字의 字音体系 研究』東国大学校 碩士学位 論文, pp.1-42.
李京哲(2002)「日本漢字音에 나타나는 イ・ウ列長音表記의 原流에 対해서」『日本学』第21輯, 東国大学校 日本学研究所, pp.63-81.
_____(2005b)「한화사전 관용음표기의 문제점에 대하여」『日本文化研究』第14輯, 동아시아일본학회, pp.471-488.
_____(2006)「漢和辞書における呉音規定の問題点」『日本文化研究』第19輯, 동아시아일본학회, pp.367-384.
_____(2009)「日本漢字音의 字音形에 나타나는 拍의 関与에 대해서」『日本語学研究』第25輯, 韓国日本語学会, pp.129-142.
_____(2012)「韓国漢字音의 軽唇音化 반영여부에 대한 考察-日本漢字音과의 比較를 중심으로-」『日本学研究』第36輯, 檀国大学校 日本研究所, pp.323-343.
李京哲・白恵英(2008)「漢和辞典 慣用音 表記의 実像-陽声・入声字의 誤記例를 중심으로-」『日本語学研究』第22輯, 韓国日本語学会, pp.201-216.
_____(2009)「漢和辞典에 나타나는 漢音 規定의 問題点」『日本語文学』第41輯, 韓国日本語文学会, pp.117-130.
李京哲・宋在漢(2012)「日本呉音에 혼입된 記紀万葉의 자음형에 대하여-陰声韻을 중심으로-」『日本研究』第53号, 韓国外国語大学校 日本研究所, pp.349-364.
榎木久薫(1989)「光明真言土沙勧信記の字音について」『鎌倉時代語研究』第12輯, 鎌倉時代語研究会, pp.215-284.
小倉肇(1995)『日本呉音の研究 第Ⅰ部 研究篇』新典社, pp.418-757.
佐々木勇(2009b)『平安鎌倉時代に於ける日本漢音の研究 研究篇』汲古書院, pp.67-505.
高松政雄(1982)『日本漢字音の研究』風間書房, pp.667-734.
沼本克明(1982)『平安鎌倉時代に於る日本漢字音に就ての研究』武蔵野書院, pp.537-599.
_____(1997)『日本漢字音の歴史的研究』汲古書院, pp.348-349.
肥爪周二(2001)「ウ列開拗音の沿革」『訓点語と訓点資料』第107輯, 訓点語学会, pp.1-18.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森博達(1991)『古代の音韻と日本書紀の成立』大修館書店, pp.54-96.
山田孝雄(1958)『国語の中に於ける漢語の研究』宝文館, pp.157-178.
湯沢質幸(1987)『唐音の研究』勉学社, pp.61-106.
E. G. Pulleyblank(1984) *MIDDLE CHINESE: A STUDY IN HISTORICAL PHONOLOGY*,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pp.106-113.
GÜNTHER WENCK(1957) *JAPANISCHE PHONETIK*, OTTO HARRASSOWITZ WIESBADEN, pp.124-148, 170-188.
W. South Coblin(1983) *A Handbook of Eastern Han Sound Glosses*, The Chinese University Press, pp.95-105.

❖ 투고일 : 2013.06.20
❖ 심사완료일 : 2013.08.16
❖ 게재확정일 : 2013.08.16

KYOBO 교보문고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